

3월 초순 사료가격 다시 인상해야

사료협회 회원공장의 전체평균을 볼 때 155 \$ 짜리 옥수수가 1월 4일이면 떨어지고 400 : 1의 적용을 받는 175 \$ 짜리 옥수수는 2월 25일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2월 26일부터는 \$ 174⁸⁹의 485 : 1 옥수수를 사용하게 됨으로 1차 가격조정 14~16% 인상후, 이 가격에 10%+알파의 가격이 붙을 것이며 이와같은 가격은 7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흥 래
〈사료협회 기획부장〉

1975. 1월초부터 종전 옥수수의 재고가 떨어진 공장에서는 배합사료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여 15/1 현재 전국적으로 2/3이상 해당하는 배합사료공장이 판매 가격을 13~16% 수준에서 인상하였고 그 밖의 공장도 원료가 떨어지는 대로 올릴예정에 있으며 종전환율로 공급되는 옥수수재고가 늦어도 25/2일에는 바닥이 나게 되므로 25/2이후에는 또다시 인상된 환율로 공급할 실정에 있으므로 더욱 불안이 감돈다. 지난 연말부터 계란 및 육계시세가 오르고 있어 양계가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산물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의 자못 궁금한 상태이다. 대체적으로 양계 보유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된다면 어느 정도 숨은 돌리겠으나 너무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료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 사료곡물수급추세

1971~72이후 세계적인 사료곡물의 수급추

세를 보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년도별로 크게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수출입현황

사료곡물의 수출입현황을 보면 최대 수출국가는 미국으로서 세계 총 무역거래량에 대하여 71/72년도에 38.1% 72/73년도에 56.4% 73/74년도에 56.7% 1974/75년도에 계획이 43.9%로 나타나 있는 바 74/75년도에 수출량이 전년에 비하여 16.1백만톤이나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74년도에 사료곡물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미국다음의 1974/75년도 사료곡물 수출국가는 아르헨티나 14.3%, 호주 7.0%, 남아프리카 6.3%, 캐나다 3.5%, 그리고 태국이 3.3%로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만이 사료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유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년도별 세계교역량을 고찰하면 71/72년대비 72/73년도에 15.4% 73/74년도에 41.9%가 증가하였으나 1974/75년도에는 16.0%가 증가되어 겨우 72/73년도 수준에서 교역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료곡물의 수입국가를 보면 총교역량의 44.1%~49.6%를 서부유럽에서 수입하고 그 다음으

<표 1>

세계사료곡물의 무역·생산·재고 및 소비추세

단위 : 백 만톤

국 가 및 지 역 별			1971-72	1972-73	1973-74	1974-75계획 12.18 현재
수출						
캐나다			4.4 (8.1)	4.0 (6.4)	2.7 (3.5)	2.2 (3.5)
호주			3.2 (5.9)	1.6 (2.5)	1.7 (2.2)	4.4 [*] (7.0)
아르헨티나			6.2 (11.4)	4.2 (6.7)	8.2 (10.6)	9.0 (14.3)
남아프리카			3.1 (5.7)	3.1 (4.9)	0.4 (0.5)	4.0 (6.3)
태국			2.3 (4.2)	1.1 (1.8)	2.3 (3.0)	2.1 (3.3)
소련			19.2 (35.3)	14.0 (22.3)	15.3 (19.8)	19.7 (31.2)
기타 국가			33.7 (61.9)	27.4 (43.6)	33.4 (43.3)	35.4 (56.1)
미국			20.7 (38.1)	35.4 (56.4)	43.8 (56.7)	27.7 (43.9)
세계 총계			54.4 (100)	62.8 (100)	77.2 (100)	63.1 (100.0)
			(100)	(115.4)	(141.9)	(116.0)
수입						
서부 유럽			27.0 (49.6)	27.7 (44.1)	34.6 (44.8)	28.7 (45.5)
일본			10.1 (18.6)	12.0 (19.1)	14.0 (18.1)	12.4 (19.7)
소련			4.3 (7.9)	5.6 (8.9)	5.0 (6.5)	2.5 (4.0)
동구라파			4.6 (8.5)	5.2 (8.3)	3.7 (4.8)	4.7 (7.4)
기타 국가			8.4 (15.4)	12.3 (19.0)	19.9 (25.8)	14.8 (23.4)
세계 총계			54.4 (100)	62.8 (100)	77.2 (100)	63.1 (100)
생산						
캐나다			22.2 (3.9)	18.8 (3.5)	18.4 (3.1)	15.6 (2.8)
호주			5.8 (1.0)	3.6 (0.7)	4.8 (0.8)	5.1 (0.9)
아르헨티나			9.5 (1.7)	15.7 (2.8)	17.3 (2.9)	17.3 (3.1)
남아프리카			10.1 (1.8)	4.5 (0.8)	11.8 (2.0)	9.6 (1.7)
태국			2.3 (0.4)	1.4 (0.3)	2.5 (0.4)	2.7 (0.5)
소련			70.6 (12.4)	70.4 (12.7)	96.6 (16.0)	94.0 (16.8)
서구라파			80.4 (14.1)	80.4 (14.5)	82.6 (13.7)	82.5 (14.8)
동구라파			50.4 (8.9)	55.0 (9.9)	54.5 (9.0)	51.3 (9.2)
기타 국가			128.0 (22.5)	121.8 (22.0)	128.4 (21.3)	131.6 (23.6)
세계 총계			379.3 (66.7)	371.6 (67.1)	416.9 (69.1)	409.7 (73.3)
미국			189.7 (33.3)	182.1 (32.9)	186.7 (30.9)	149.1 (26.7)
세계 총계			569.0 (100)	553.7 (100)	603.6 (100)	558.8 (100)
			(100)	(97.3)	(106.1)	(98.2)
소비						
미국			151.0 (27.4)	158.0 (27.6)	155.7 (25.6)	131.0 (22.9)
소련			72.0 (13.1)	75.4 (13.2)	99.5 (16.3)	98.0 (14.0)
기타 국가			328.3 (59.5)	338.9 (59.2)	354.0 (58.1)	344.1 (60.1)
세계 총계			551.3 (100)	572.3 (100)	609.2 (100)	573.1 (100)
			(100)	(103.8)	(110.5)	(104.0)
재고						
세계 총계			75.8 (13.7)	57.2 (10.0)	51.6 (8.5)	37.3 (6.5)
			(100)	(75.5)	(68.0)	(49.2)

() 내는 백분비임.

자료 : Feedstuff. 1975. 1. 6

로 일본에서 18.1~19.7%를 수입하고 있으며 소련이 4.0~8.9%를 동구련에서 4.3~8.3%를 수입하고 기타국가에서 15.4~25.8%를 수

입하고 있으나 단일국가로서는 일본이 최대 사료곡물수입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0.7%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사료곡물생산내역을 보면 미국이 총량의 26.7~33.3%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소련으로서 12.4~16.8%를 생산하고 서구지역에서 13.7~14.8%를 동구지역에서 8.9~9.9%를 생산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2.8~3.9%를 아르헨티나가 1.7~3.1%를 남아프리카가 0.8~2.0%를 태국이 0.3~0.5%를 생산하고 있는바 미국이 소련에 비하여 배가까이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추세를 보면 미국이 22.9~27.6%로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으로 소련이 13.1~16.3%를 소비하고 기타 모든 국가에서 58~60%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이 소련보다 33~56%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료곡물의 세계 총재고량은 1971/72년도에 75.8백만톤에서 72/73년도에는 75.5%로 감소하고 3/74 년도말에는 68.0% 74/75년도말에는 49.72%로반감되고 있어 이와같은 재고량은 24일분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배합사료생산추세

1974.1~11월까지의 배합사료생산실적을 보

면 <표 2>에 소개드리는바와 같이 1973년 동기간 대비 0.6%가 증가한 838,094%를 생산하였다. 이들 사료의 용도별로 대비하여 보면 육추용사료가 9.9% 성계용사료가 41.0% 육계용사료가 8.8% 계 59.7%를 양계용사료가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양계용사료 생산량 685,330%에 비하여 27%가 감소된 500,383%밖에 생산하지 못한 반면 양돈용사료가 20.8% 절소용사료 12.9%, 비육우사료 4.8%, 기타 사료가 1.8%로서 74년도 이후에는 양계용사료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4년도 생산량을 월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1월, 3월, 4월, 7월, 8월, 9월이 생산량이 떨어지고 2월, 5월, 6월, 10월, 11월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월별 생산량의 변동은 축산물가격의 형성 생산조절 및 생산시기 등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나 육추사료 육계사료 및 양돈사료의 생산량 변화가 큰 반면 대체적으로 산란계사료 생산량이 안정되어 있고 낙농사료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신장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75년도에는 양계사료 57만톤 양돈사료 25만톤 낙농사료 11만톤 비육우사료 7만톤이 생산될 것

<표 2> 배합사료생산실적 (단위 · 톤)

월 별	1 9 7 4 (A)							1973 (B)	A/B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타	계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 계							
1	7,167	30,612	3,702	41,481	12,464	9,022	1,177	586	64,729	68,330	94.7
2	6,075	30,113	3,144	39,260	14,539	8,701	1,786	796	65,154	58,325	111.7
3	6,743	30,827	3,630	41,200	14,935	8,774	2,005	3,577	70,491	76,774	91.8
4	6,963	31,017	6,065	44,045	15,023	9,179	2,933	2,669	73,849	77,070	95.8
5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8,152	75,257	103.9
6	8,181	31,736	8,974	48,891	16,708	8,045	3,265	707	77,616	72,959	106.4
7	8,163	31,664	9,730	49,557	16,214	8,306	3,265	736	78,078	81,276	96.1
8	7,776	29,586	8,708	46,070	15,512	8,868	4,526	1,145	76,121	79,832	95.4
9	7,248	31,354	8,007	46,609	17,246	11,222	5,846	770	91,693	84,986	96.2
10	8,796	35,801	7,782	52,479	18,328	13,543	7,149	1,119	92,618	80,616	114.9
11	7,555	31,388	5,560	44,504	15,961	13,011	5,340	1,369	80,185	76,601	104.7
계	82,781	344,212	73,390	500,383	174,182	108,133	40,546	15,233	838,094	833,019	100.6
용도별비%	9.9	41.0	8.8	59.7	20.8	12.9	4.8	1.8	100	—	—
1973생산량	111,751	448,843	124,736	685,330	121,822	82,544	5,412	14,512	909,620	—	—
용도별비%	12.3	49.3	13.7	75.3	13.4	9.1	0.6	1.6	100	—	—
증가율	74.1	76.7	58.8	73.0	143.0	131.0	749.2	105.0	100.6	—	—

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앞으로 더욱 양제사료의 비중이 감소될 추세에 있다.

3. 사료도입현황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으로 식량 및 외자확보가 점차 어려워가고 있으므로 사료의 수입규모를 감소하여 사료의 자급도를 제고시키고자 가축증식의 방향을 초식가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사료자원개발과 배합사료 원료대체 및 조사료증산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원료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도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미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을 공여받았으나 1964년에 잉여농산물에 의한 사료도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환수급상 1966년도에는 배합사료 원료를 100% 자급화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1967년도부터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축산진흥에 의한 농가소

득증대를 위하여 부족사료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료도입량 및 배합사료생산량은 <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사료도입량은 1973년까지 급속히 신장되어 오다가 74년도에는 전년대비 85,000%이나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도입억제계획에 의거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는한 1974년도수준에서 사료도입량이 조정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사료도입에 따른 물량증가에 비하여 외화부담액은 1972년도까지는 비교적 차이가 없이 증가하여 왔으나 국제가격 폭등으로 1974년도에는 1967년대비 물량증가 1,028%에 비하여 증가한 229%의 외화부담을 감안할 때 내자조달의 중요성과 필연상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년도별 배합사료생산량에 대한 사료도입율을 보면 도입절유율이 1967년도의 42.2%에서 매년 증가하여 1971년도에는 최고 67.1%까지 상승하였다가 1972년도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4년도에는 51.2%까지 하락

<표 3>

배합사료도입실적

(단위 : \$/톤)

구	분	도입량 (A)	단 가	금 액 (\$)	대 비 (%)		배 합 사 료	
					물 량	금 액	생 산 량 (B)	A/B
1	9 6 7	45,268	71.065	3,216,971	100	100	107,256	42.2
1	9 6 8	97,976	79.13	7,752,833	216	241	223,314	43.9
1	9 6 9	218,511	74.525	16,284,549	483	506	367,518	59.5
1	9 7 0	310,484	85.925	26,678,214	686	829	507,564	61.1
1	9 7 1	471,019	82.486	38,852,649	1,040	1,208	702,110	67.1
1	9 7 2	500,542	74.975	37,528,266	1,106	1,166	776,236	64.5
1	9 7 3	550,299	123.759	68,099,696	1,216	2,117	909,620	60.5
1	9 7 4	465,524	162.535	75,664,015	1,028	2,352	910,000	51.2
육 수 수	KFX 민간차관	377,954	157.67	59,590,655				
		1,832	150.77	276,712				
수 수	KFX AID	379,786	157.63	59,867,367				
		17,476	140.81	2,460,683				
목 피 오 카	소 계	30,202	141.30	4,267,559				
		47,678	141.12	6,728,242				
우 지	소 계	427,464	155.79	66,595,609				
		16,191	103.03	1,668,107				
인 산 칼 습 제	미 료	699	458.75	320,676				
		1,953	235.08	459,111				
향 대	두	29	2,619.76	75,973				
		19,188	341.07	6,544,539				

하고 있으며 1975년도에는 45% 수준으로 수입억제조치를 강구하리라 추측된다. 1974년도의 사료별 수입내역을 보면 총도입량 465,524톤중 옥수수가 81.6%로서 379,786톤을 접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수수로서 10.2%인 47,678%을 도입하였으며 그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열대서류인 타피오카 16,191% (3.6%)을 포함하면 에너지사료가 전사료도입량의 9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두가 4.1% 인산칼슘제가 0.4% 우지가 0.2% 이하로서 대두박을 제외한 단백질사료는 최근 국내 생산량의 증가 및 단백질사료의 배합율이 높은 양계용배합사료의 수요감소로 원활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단백질사료의 대두박 대체효과가 현저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에너지원을 어떻게 개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또한 사료자원개발에는 정부가 이와같은 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미량광물질을 비롯하여 칼슘과 인의 합리적이고 균형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질선개선과 자급화도 중요하다고 보겠다.

4. 배합사료원료시세

배합사료원료시세를 국제시세와 국내시세로 대별하여 설명드리고자 한다.

가. 국제사료곡물시세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C&F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맥가격은 11/4일에 최고시세를 나타냈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월 선적기간을 통하여 75 1/3 현재 10/3 대비 약 13%, 11/4대비 13~17% 12/3대비 약 9%가 하락되고 있다. 따라서 옥수수는 10/3에 최고시세를 나타냈다가 서서히 하락되어 1/3 현재 5~7월 선적분은 \$170, 9~12월 선적분은 \$162 이하로 선물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계속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 이와같은 시세는 1/3현재 10/3대비 13~6% 11/4대비 5~12% 12/3대비 7%이하 수준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두박가격은 10/3에 최고시세를 나타내었다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으며 1/3 현재 3월선적분이 \$215 이므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서울지구 사료공장에 도착시킬 경우 485:1의 환율을 적용하고 금리를 75일간 부담한다 하여도 포장재를 포함하여 톤당 115,000원 kg당 115원이면 공급가능하므로 현재 대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착유하고 거기서 나온 대두박을 공급하고 있는 동방유량(주)산 대두박가격이 이제까지 공장도가격 123,000원 서울도착기준 127,400원대가 소요되었던 것도 도입가격에 비하여 비싼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두박이 국산대두의 착유에서 얻어지는 박이라면 국제수지의 개선과 자급제고를 위하여 적극 호응하여야 되겠으나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한 근대화된 시설과 대두로 착유한 대두박의 국내공급가격이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되는 것이므로 현재 어분을 비롯한 단백질사료사정이 원활한 실정에 있으므로 대두박가격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 적정거래가 이루어져 배합사료 공장이나 양축가가 자유로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내주요단미사료시세

1/15 현재 서울지방의 주요단미사료시세를 보면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12/7환율인상조치를 계기로 국내 부원료시세가 현재 회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75.1.15 시세를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옥수수가격이 외산 21.9% 내산 43.3%가 상승되고 대두박 맥강 소맥피 등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박 호마박 및 채종박과 어분시세가 다소 하락된 실정에 있으나 전월대비 도입옥수수가격이 13.2% 국산옥수수 7.5%대두박 임박 호마박 및 배아박 등이 5~8% 상승추세에 있고 채종박은 무려 15% 이상이나 폭등하였으며

〈표 4〉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단위 : \$/C&F톤

종 별	조사일자 선적월		'74	11/4	12/3	12/9	12/16	12/23	12/31	'75	75.1.3/	75.1.3/	75.1.3/
			10/3								1/3	74.10.3	74.11.4
소 맥	3		223	224	212	205	200	198	197	193	86.5	86.2	91.0
	5		221	225	213	205	199	197	196	192	86.9	85.3	90.1
	7		208	210	200	194	185	182	184	181	87.0	86.2	90.5
	9		210	222	202	196	189	184	185	184	87.6	82.9	91.1
	12		—	216	206	199	191	188	188	187	—	86.6	91.2
옥 수수	5		194	189	182	177	175	160	170	170	87.6	90.0	93.4
	7		195	—	183	178	175	161	170	170	87.2	—	92.9
	9		187	186	177	171	167	163	160	162	86.6	87.1	91.5
	12		171	169	161	156	—	150	149	160	93.6	94.7	99.4
	3		—	172	163	158	155	152	151	152	—	88.4	93.3
대 두	3		390	357	327	314	321	318	304	305	78.2	85.4	93.3
	5		391	363	332	320	325	322	307	309	79.0	85.1	93.1
	7		391	364	334	322	326	324	311	312	79.8	85.7	93.4
	8		387	363	332	321	325	323	311	310	80.1	85.4	93.4
	9		370	344	318	307	313	311	299	300	81.1	87.2	94.3
	11		356	329	307	298	303	302	293	295	82.9	89.7	96.1
	1		356	330	309	301	305	304	296	297	83.4	90.0	96.1
	3		268	249	239	237	232	221	218	215	80.2	86.4	90.0
대 두 박	5		272	254	246	244	238	228	225	221	81.3	87.0	89.8
	7		275	257	247	248	242	233	231	228	82.9	88.7	92.3
	8		278	257	249	248	244	236	233	229	82.4	89.1	92.0
	9		277	252	251	248	248	235	234	232	83.8	92.1	92.4
	10		—	—	—	—	—	231	230	232	—	—	—
	12		—	—	—	—	—	231	229	232	—	—	—
	1		—	—	—	—	—	—	230	233	—	—	—

〈표 5〉

주요단미사료도매시세표(75.1.15 현재)

단위 · 원/kg

종 별	서울 지방 도매시세			대 비 (%)	
	74.1/15	74.12/15	75.1/15	75.1.15/ 74.1.15	75.1.15/ 74.12.15
옥 수수 (도입)	64.40	69.36	78.52	121.9	113.2
" (국산)	60 (144.70)	80	86	143.3	107.5
대 두 박	127	127	133.25	104.9	104.9
임 박	95.50	80	86.75	90.8	108.4
호 마 박	95.80	80	86.25	90.0	107.8
채 종 박	81.30	54	62.50	76.9	115.7
옥 수수 배 아 박	59	51	55	93.2	107.8
맥 강	40	36	41	102.5	113.9
탈 지 강	44.70	39.50	42.50	95.1	107.6
소 맥 피	20.10	21	21	104.5	100
어 분(상)	146.70	126	140	95.4	111.1
어 분(중)	118.70	110	120	101.1	109.1

자료 : 한국사료협회

탈지강이 7.6% 맥강이 13.9%나 앙등된 시세로 거래되고 있으며 국산어분가격이 상품이나 중품을 막론하고 9~11% 오른시세로 거래되고 있어 이와같은 단미사료가격의 앙등은 수입사료와 더불어 직접 배합사료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단미사료시세는 사료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에 따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과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자극되어 심리적인 작용과 가수요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염려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한 3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되 2월에는 계속 약간 상승되지 않을까 느껴진다.

5. 배합사료가격전망

현재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요인은 대략 몇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155짜리 태국산 옥수수 재고가 언제 떨어지고 400:1 환율의 적용을 받을 \$175.⁵⁰짜리 66,498%의 옥수수가 언제부터 쓰여지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485:1 환율의 적용을 받을 \$174.⁸⁹짜리 옥수수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느냐 즉 원료가격앙등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가부담가중을 들수 있고 셋째는 환율변동과 물가고에 따른 제조원가와 일반 관리비의 증가를 들 수 있고 넷째는 환율변동에 따른 도입사료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타 부원료가격의 앙등여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동방유량산 대두박 공급가격 민수도입 소맥가공부산물인 소맥피가격 그리고 정부관리양곡부산물 가격의 인상조치여부 그리고 기타 시중유통사료가격의 형성여하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의 적정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뚜렷하게 배합사료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요인은 옥수수가격과 적용환율의 변동여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 6>를 보면 뚜렷이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료협회 회원공장은 전체 평균을 볼때 \$155짜리 옥수수가

1/4일이며 떨어지게 되고 400:1의 적용을 받는 \$175.⁵⁰짜리 옥수수는 2/25일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2/26일부터는 \$174.⁸⁹의 485:1 옥수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1차가격조정은 1월 초순에 2차가격조정은 2/26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1차가격조정의 인상폭은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사료별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체적으로 14~16% 범위로 추산되며 2차가격조정 범위는 1차가격조정에다 10%+알파가 붙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2월하순 조정가격은 7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료곡물가격추세를 전망할 때 금년 봄에 파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일기만 양호하다면 8월부터 사용하게 될 옥수수는 \$160 수준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미국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이기 때문에 배합사료가격도 하반기에 가서는 제 2차조정예정가격보다 5%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예견되는바 양측가 여러분은 가장 최악의 시련기라고 볼 수 있는 75년도 상반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추세를 참고로 소개드리면 미국은 대부분(99%이상)의 원료를 자체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가격은 <표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원료가격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가격과 구매물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지난 10월에 톤당 8,500엔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있었고 다시 금년 1월에 7,500엔의 가격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이와같은 가격인상은 원화로 환산한다면 25,866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12월에 11월보다 산란제사료가 \$3 옥계용사료가 \$3씩 하락하였으며 옥수수가격이나 대두박가격이 계속 현지에서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도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후 '74년 8월과 10월의 배합사료가격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배합사료원료 사용시기 추정표(1~7월)

(단위 : 톤)

지역별	구분	월간평균소요량 (3개월 평균치)	11월말 현재 \$155 재고량	\$155배정량 (400 : 1)		\$171.50 (5,000% 400 : 1)		\$180 27,260톤 400 : 1 \$172.80 34,140톤 400 : 1		\$174.89 188,962톤 485 : 1적용시기
				배정량	누계	배정량	누계	배정량	누계	
경인지구	물량	17,958	14,786	2,410	17,196	2,718	19,914	(13,061 18,000	50,975	총도입량 188,962% 배정 : 수요자별 배정미장 평균당가 : \$174.89 사용시기 : 2.25~7말
	소요추정시기				12/28		1/3		2/25	
충부지구	물량	4,043	2,055	1,146	3,201	470	3,671	(2,780 5,100	11,551	
	소요추정시기				12/24		12/27		2/25	
군산지구	물량	2,590	5,403		5,403	60	5,463	(1,530 340	7,333	
	소요추정시기				2/2		2/3		2/25	
부산지구	물량	8,009	11,415		11,415	50	11,465	(5,590 5,600	22,655	
	소요추정시기				1/12		1/13		2/25	
계	물량	32,600	33,659		7,215	3,298	40,513	52,001	92,514	
	소요추정시기				1/4		1/7		2/25	
적요	조정예정시기			중전기적용		1차가격조정시기				2차가격조정시기
	원가상승범위			시 기		14~16% 범위				10% +알파

<표 7>

미국의 배합사료가격

(단위 : \$/톤)

종별	71/12	72/12	73/12	74/1	2	3	4	5
산란계 사료	83	102	145	152	153	151	144	137
%	100	122.9	174.7	183.1	184.3	181.9	173.5	165.1
육계 사료	95	112	162	170	169	165	156	151
%	100	117.9	170.5	178.9	177.9	173.7	164.2	159.0

종별	6	7	8	9	10	11	12	74/평균
산란계 사료	137	141	168	163	168	167	164	153.75
%	165.1	169.9	202.4	156.4	202.4	201.2	197.6	185.24
육계 사료	151	157	180	176	185	183	180	168.58
%	159.0	165.3	189.5	185.3	194.7	192.6	189.5	177.4

자료 : 관계자료에서